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9, No.5 [October 2022], pp.7-29
http://dx.doi.org/10.20496/cpew.2022.9.5.7

어둠의 성격 4요소와 외로움 및 분노의 관계: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Dark Tetrad, and Loneliness and Anger: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유 정 아(Jeong-A YU)[*] · 최 재 광(Jae-Gwong CHOI)[**] · 송 원 영(Won-Young SONG)[***]
건양대학교(Kony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어둠의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분노와 외로움과의 관계를 공감의 매개를 통해 확인하여 어둠의 성격의 대인 관계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어둠의 성격 4요소, 공감, 외로움, 분노를 측정하여 어둠의 성격과 공감의 하위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마키아벨리즘, 자기애적 성격, 정신병질적 성격은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고통을 통해 외로움과 분노로, 공감적 관심을 통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둘째, 자기애적 성격과 정신병질 성격은 인지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조망수용을 통해 외로움과 분노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어둠의 성격의 특성에 따라 공감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둠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외로움과 분노에 대하여 공감에 초점을 둔 개입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어둠의 성격 4요소(SD4-K), 외로움, 분노, 공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of a dark personality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loneliness, which appears in a dark personality, through empathy. For this purpose, 1000 adult males in the nationwide region were assessed by dark tetrad, empathy, loneliness, and anger and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ths leading to loneliness and anger t hrough personal distress, which is a sub-factor of emotional empathy, were significant for Machiavellianism,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psychotic personality. Also, the path leading to loneliness through empathic concern, a sub-factor of affective empathy, was significant. Second, the paths leading to loneliness and anger through perspective taking, which is a sub-factor of cognitive empathy, were significant for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psychotic personality.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empathic responses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ark personality. This suggests that empathy-focused interventions can be useful to decrease the loneliness and anger manifested by the dark personality.

Keywords: Dark Tetrad(SD4), Loneliness, Anger, Empathy, mediation effect

* 제1저자, aumi1484@gmail.com,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M.A. student,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nyang University, Nonsan 32992, Korea)
** 공동저자,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nyang University, Nonsan 32992, Korea)
*** 교신저자, 1058@paran.com,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Nonsan 32992, Korea)

Ⅰ. 서 론

성격(Personality)의 어원은 페르소나(persona), 즉 가면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배우들이 쓴 가면이 특정 등장인물을 상징하는 것처럼 성격이란 개인의 독특하고 일관적인 특징을 의미한다(Snyder, lckes, 1985). 최근에 자신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적응적인 대인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트렌드모니터, 2021). 성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성격 특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Bonfá-Araujo, Lima-Costa, Hauck-Filho, Jonason, 2022; Neumann, Jones, Paulhus, 2022). 임상적 기능 손상이 즉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잠재적으로 기능 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파괴적인 행동적 징후를 포함하는 성격은 다양하다(Kowalsi, 2001). 특히 사회적 일탈이 두드러지는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어둠의 성격(dark personality)이라 정의하고 구분하기 시작했다(Paulhus, Williams, 2002).

어둠의 성격은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 자기애적 성격(Narcissism), 정신병질적 성격(Psychopathy), 가학적 성격(Sadism)과 같은 4가지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마키아벨리즘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고 기만하며 냉담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특성이다(Christie, Geis, 2013). 둘째, 자기애적 성격은 자기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공감하지 못하며 착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는 특징을 보인다(Raskin, Hall, 1979). 셋째, 정신병질적 성격은 기만적이고, 반성과 죄책감의 부재와 무책임하고 충동적이며 반사회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Hare, Neumann, 2008). 넷째, 가학적 성격은 잔인하고 타인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며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Buckel, Jones, Paulhus, 2013; Paulhus, Jones, 2015). 네 가지 성격을 '어둠'의 성격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냉담하고 무관심하며, 이중성을 가지는 등 악의적인 성격이라는 공통점 때문이다(Paulhus, Willims, 2002).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된 규범과 도덕 가치에 무관심하고, 타인에게 비공감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Karandikar, Kapoor, Fernandes, Jonason, 2019; Muris, Merckelbach, Otgaar, Meijer, 2017). 임상적으로 즉각적인 기능 손상 문제를 나타내는 수준은 아니지만,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문제(Tracy, 2017), 대인 관계 문제(March, 2019), 행동 적응 문제(Ramos-Villagrasa, Fernández-del-Río, Barrada, 2020) 등의 인지 · 행동 · 정서 문제와 많은 관련을 보인다. 어둠의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관심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타인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위해주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Kajonius, Björkman, 2020).

상대방의 마음과 내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한다(Howe, 2012). 공감은 하나의 영역이 아닌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Davis, 1980;

Jonason, Krause, 2013; Shamay-Tsoory, 2011; Stinson, Wolfe, Spaulding, 2022). 또한 신경학적으로도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각각 다른 뇌 영역에서 확인되어 공감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뒷받침되고 있다(Fan, Duncan, de Greck, Northoff, 2011).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인지적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과 관련된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능숙하다(Davis, 1980; Losoya, Eisenberg, 2001).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혹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경험될 수 있는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며, 동정심, 공감적 분노, 정서전염 등이 포함된다(Davis, 1980; Maibom, 2017). 공감을 다차원적으로 볼 때 개개인의 반응양식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Davis, 1983).

공감의 다차원적 관점은 어두운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어둠의 성격은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성격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감의 결핍은 다르게 나타난다(Furnham, Richards, Paulhus, 2013; Johnson, Plouffe, Saklofske, 2019; Paulhus, Williams, 2002;). 마키아벨리즘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감을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서적 공감은 부족할 수 있다(Blötner, Steinmayr, Bergold, 2021; Jonason, Krause, 2013). 자기애적 성격의 경우 지속해서 관심을 받아야 하는 목적성 때문에 공감을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Turner, Foster, Webster, 2019; Wai, Tiliopoulos, 2012). 정신병질 성격은 충동적이고 비관습적인 특성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거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 무례하게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무책임하고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Hare, Neumann, 2008; Pajevic, Vukosavljevic-Gvozden, Stevanovic, Neumann, 2018; Williams, Paulhus, 2004). 가학적 성격은 잔인한 것을 즐기며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쾌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타인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인식 능력은 뛰어날 수 있지만, 같은 고통으로 경험되지 않는다(Dietz, Hazelwood, Warren, 1990; Nell, 2006).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주요 과정으로서 공감의 결핍은 대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초래되기 쉽다(Jeung, Herpertz, 2014; Remond, 1989). 또한, 공감은 대인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것과 대조적으로, 어둠의 성격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단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Crysel, Crosier, Webster, 2013; Jonason, Li, Webster, Schmitt, 2009).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대인 관계를 형성했으며, 마키아벨리즘 성격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관계를 맺는 등 목적성 있는 관계를 추구했다(Jonason, Luevano, Adams, 2012; Jonason, Schmitt, 2012). 이렇듯 어둠의 성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대인관계는 우울, 불안,

분노, 외로움과 같은 부정정서를 쉽게 느끼게 한다(Qualter, Quinton, Wagner, Brown, 2009; Wei, Heppner, Mallinckrodt, 2003). 특히 대인 관계에서 경험되는 분노와 외로움은 파괴적 관계, 공격성, 사회적 고립, 중독과 같은 이차적인 부적응적 결과를 야기한다(여지영, 강석영, 김동현, 2014; 정주영, 2014; Brodie, Goodall, Darling, McVittie, 2019).

분노와 외로움은 어둠의 성격과도 밀접한 정서로, 어둠의 성격일수록 분노를 적합하지 못하게 표현하거나(Glenn, Sellbon, 2015; Gogorițǎ, 2019; Jonason, Li, Teicher, 2010; Stead, Fekken, 2014), 외로움을 쉽게 느낀다(Masui, 2019; Zhang, Zou, Wang, Finy, 2015). 특히 마키아벨리즘과 정신병질 성향인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는 데 그들이 분노를 경험하면 공격성, 괴롭힘, 데이트 폭력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될 수 있다(Brankley, Rule, 2014; Johnson, 2019; Kiire, 2017; Lay, Marsee, 2013; Pilch, Turska, 2015). 또한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박탈과 부적절함으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상태로(Ozcan, Savci, Canik, Ayan, Bas, 2022), 자살(Stravynski, Boyer, 2001), 중독(Karaoglan Yilmaz, Avci, Yilmaz, 2022)과 같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어두운 성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외로움으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질 수 있다(Masui, 2019; Twenge, Campbell, 2003). 즉, 어둠의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노 및 외로움과 같은 부정정서를 지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범죄 및 자살 등의 부적응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Chabrol, Melioli, Van Leeuwen, Rodgers, Goutaudier, 2015; Mandiwana, 2021). 따라서 어둠의 성격이 부정정서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어둠의 성격과 분노 및 외로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공감의 역할을 조사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Glammarco, Vernon, 2014; Wai, Tiliopoulos, 2012). 어두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대인 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분노나 외로움과 같은 부정정서를 느끼게 된다(Masui, 2019; Stead, Fekken, 2014). 공감은 분노(Konstam, Chernoff, Deveney, 2001)와 용서, 소진과 외로움 사이(McWhirter, Besett-Alesch, Horibata, Gat, 2002)에 매개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Eisenberg, Miller, 1987; McDonald, Messinger,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둠의 성격이 분노표현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어둠의 성격이 어떤 공감 유형을 매개하여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어둠의 성격에 따른 공감 능력을 살펴봄으로써 공감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통합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어둠의 성격과 분노 및 외로움의 관계에서 공감 능력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여 각각의

성격유형에 해당하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 개입 및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둠의 성격과 공감 능력(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둠의 성격과 외로움 및 분노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어둠의 성격과 외로움 및 분노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의뢰하였다. 기관에서 확보한 대상자 중에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을 조건으로 하여 설문 참가를 의뢰한 후, 설문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2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에 따라 200명씩 총 1000명의 성인 남성을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가. 한국판 단축형 어둠의 성격 4요소 척도(SD4-K)

어둠의 성격 4요소 척도는 마키아벨리즘, 자기애적 성격, 정신병질 성격, 가학적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Paulhus, Buckels, Trapnell과 Jones(2021)이 개발한 것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 중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그들의 연구(Paulhus et al., 2021)에서 나타난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마키아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1000)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대	만21세~만30세	200	20.0	최종학력	중졸 이하	7	0.7
	만31세~만40세	200	20.0		고등학교 졸	173	17.3
	만41세~만50세	200	20.0		대학교 졸	699	69.9
	만51세~만60세	200	20.0		대학원 졸(석사)	84	8.4
	만61세~만70세	200	20.0		대학원 졸(박사)	37	3.7
거주지역	서울	284	28.4	거주지역	충청북도	24	2.4
	부산	51	5.1		충청남도	28	2.8
	대구	53	5.3		전라북도	17	1.7
	인천	60	6.0		전라남도	16	1.6
	광주	35	3.5		경상북도	29	2.9
	대전	31	3.1		경상남도	47	4.7
	울산	18	1.8		제주도	7	0.7
	경기도	274	27.4		세종	8	0.8
	강원도	18	1.8				

벨리즘은 .83, 자기애적 성격은 .78, 정신병질 성격은 .82, 가학적 성격은 .82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은 .69, 자기애적 성격은 .87, 정신병질 성격은 .71, 가학적 성격은 .69였고, 전체 내적일치도는 .79로 나타났다.

나. 대인 반응성 척도

대인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ventory, IRI)는 공감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가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강일 등(200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총 4가지로 상상하기, 조망수용,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강일 등(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0이고 이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다. UCLA 외로움 척도

UCLA 외로움 척도는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 Cutrona(1980)가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김옥수(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한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3이고 이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라. 상태-특성 분노 척도(STAXI-K)

상태-특성 분노 척도는 분노표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1988)가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200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8문항)만 사용하였다. 전겸구 등(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3이고 이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이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했으며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90%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인 어둠의 성격 4요소, 공감, 분노표출, 외로움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은 왜도 절댓값 2, 첨도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4
SD4	-											
1-1. Mach	.48**	-										
1-2. Narc	.64**	.03	-									
1-3. Psyc	.71**	.09**	.26**	-								
1-4. Sadi	.66**	.16**	.14**	.46**	-							
2. 공감	.02	.02	.14**	-.07*	-.06	-						
2-1. FA	.11**	.04	.20**	-.01	-.00	.75**	-					
2-2. PT	.00	-.06*	.27**	-.14**	-.13**	.67**	.40**	-				
2-3. EC	-.03	-.13**	.26**	-.13**	-.15**	.77**	.44**	.52**	-			
2-4. PD	-.02	.19**	-.37**	.09**	.13**	.33**	.04	-.19**	-.03	-		
3. 분노표출	.31**	.16**	.00	.37**	.28**	-.05	-.03	-.23**	-.16**	.27**	-	
4. 외로움	-.01	.21**	-.48**	.21**	.14**	-.19**	-.16**	-.40**	-.39**	.47**	.28**	-
평 균	59.96	19.36	16.95	13.32	10.34	65.13	16.57	16.71	18.07	13.78	13.90	23.19
표준편차	8.55	3.25	4.07	3.32	3.05	10.24	4.19	3.71	4.25	4.04	3.73	11.00
왜 도	0.35	-0.04	-0.03	0.30	0.28	0.09	-0.08	-0.05	-0.23	-0.11	0.76	0.38
첨 도	0.82	0.40	0.03	0.04	-0.32	1.12	0.52	0.87	0.56	0.59	0.66	0.20

주1. SD4(Short Dark Tetrad) 어둠의 성격 4요소, Mach 마키아벨리즘, Narc 자기애, Psyc 정신병질, Sadi 가학성, FA(fantasy) 상상하기, PT(perspective taking) 조망수용, EC(empathic concern) 공감적 관심, PD(personal distress) 개인적 고통
**p(.05, **p(.01*

절댓값 7을 넘지 않아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Curran, West, Finch, 1996).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애적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들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가학적 성격은 종속변인인 분노표출, 외로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매개변인인 공감의 하위요인에서 조망수용, 공감적 관심과 부적상관, 개인적 고통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반면 인지적 공감인 상상하기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즉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가학적 성격일수록 낮은 정서적 공감 수준을 보이며 잦은 분노 표출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자기애적 성격은 종속변인인 외로움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분노표출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공감의 하위요인에서 상상하기, 조망수용, 공감적 관심과 정적상관, 개인적 고통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자기애적 성격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수준은 낮지만 인지적/정서적 공감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로움을 잘 경험하지 않는다.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인 어둠의 성격 4요소(마키아벨리즘, 자기애적 성격, 정신병질 성격, 가학적 성격), 인지적 공감(상상하기, 조망수용),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분노표출, 외로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1은 어둠의 성격 4요소, 인지적 공감, 분노표출, 외로움을, 측정모형2는

어둠의 성격 4요소, 정서적 공감, 분노표출, 외로움으로 구성되며 각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지수는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TLI* , CFI는 .85에서 .90이면 적합한 수준이며,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Bentler, Bonett, 1980). RMSEA는 .10 이하이면 적합한 수준이며, .08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Browne, Cudeck, 1993). SRMR은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매우 좋으며, .08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배병렬, 2017). 이 연구에서 나타난 측정모형1과 측정모형2의 적합도는 동일하게 *TLI* =.85, *CFI*=.86, *RMSEA*=.05, *SRMR*=.07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 구조모형 검증

가.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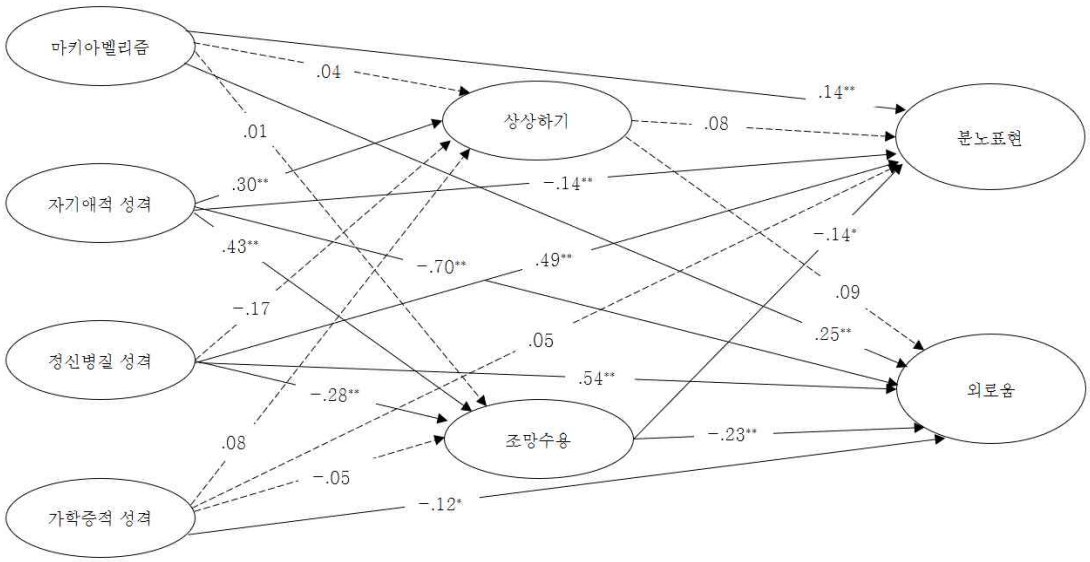
이 연구의 예측변인인 어둠의 성격이 매개변수인 인지적 공감을 통해 종속변수인 분노표출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x^2$2432.16, *TLI*=.86, *CFI*=.87, *RMSEA*=.05, *SRMR*=.07 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경로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자기애적 성격(β=.30, p〈.01)이 매개변인인 상상하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마키아벨리즘(β=.04, p=.36), 정신병질(β=-.17, p=.06), 가학적 성격(β=.08, p=.35)은 유의하지 않았다. 인지적 공감의 다른 하위요인인 조망수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애적 성격(β=.43, p〈.01), 정신병질(β= -.28,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마키아벨리즘(β=.01, p=.80), 가학적 성격(β=-.05, p=.45)은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변인인 상상하기와 종속변인인 분노(β=.08, p=.13), 외로움(β=.09, p=.07)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조망수용이 분노(β=-.14, p〈.05), 외로움(β=-.23, p〈.01)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독립변인인 어둠의 성격 4요소와 종속변인인 분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에서는 마키아벨리즘(β=.14, p〈.01), 자기애적 성격(β=-.14, p〈.01), 정신병질적 성격(β=.49, p〈.01)이 유의하였고 가학증적 성격(β=.05, p=.49)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종속변인인 외로움과의 경로에서는 마키아벨리즘(β=.25, p〈.01), 자기애적 성격(β=-.70, p〈.01), 정신병질(β=.54, p〈.01), 가학적 성격(β=-.12, p〈.05)으로 모두 경로가 유의하였다〈그림 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x^2(df)	*TLI*	*CFI*	*RMSEA*(90%)	*SRMR*
측정모형1	2500.18(78)***	.85	.86	.05(.04～.05)	.07
측정모형2	2570.77(77)***	.85	.86	.05(.05～.05)	.07

***p〈.001



[그림 3] 어둠의 성격 4요소와 분노표현 및 외로움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연구모형1은 매개변수가 여러 개인 다중 매개모델로 간접효과가 여러 개 있어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통해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는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배병렬(2017)의 제안에 따라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곱하여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를 계산하였다〈표 4〉. 어둠의 성격 4요소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을 실시하였다. 어둠의 성격이 상상하기를 매개하여 분노표출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조망수용을 매개로 하여 분노표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애적 성격(B=-.11, p〈.05)은 부적으로, 정신병질 성격(B=.17, p〈.05)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높은 정신병질적 성격일수록 조망수용 능력이 낮아 분노를 야기하는 반면, 높은 자기애적 성격은 조망수용 능력이 높아 분노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같은 방법으로 어둠의 성격 4요소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어둠의 성격에서 상상하기를 매개하여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조망수용을 매개로 하여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애적 성격(B=-.86, p〈.01)은 부적으로, 정신병질 성격(B=1.41, p〈.01)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높은 정신병질적 성격일수록 조망수용 능력이 낮아 외로움을 야기하는 반면, 높은 자기애적 성격은 조망수용 능력이 높아 외로움을 야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4〉 연구모형1의 효과분석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상상하기	마키아벨리즘	→	분노	.26**	.01	.26**	.14**	.00	.14**
	자기애적 성격	→	분노	-.24**	.04	-.31**	-.14**	.02	-.17**
	정신병질 성격	→	분노	2.24**	-.06	2.35**	.49**	-.01	.51**
	가학적 성격	→	분노	.15	.02	.19	.05	.01	.06
	상상하기	→	분노	.35		.35	.08		.08
조망수용	마키아벨리즘	→	분노	.26**	-.00	.26**	.14**	-.00	.14**
	자기애적 성격	→	분노	-.24**	-.11*	-.31**	-.14**	-.06	-.17**
	정신병질 성격	→	분노	2.24**	.17*	2.35**	.49**	.04	.51**
	가학적 성격	→	분노	.15	.02	.19	.05	.01	.06
	조망수용	→	분노	-.44*		-.44*	-.14*		-.14*
상상하기	마키아벨리즘	→	외로움	2.22**	.03	2.22**	.25**	.00	.25**
	자기애적 성격	→	외로움	-5.96**	.24	-6.58**	-.70**	.03	-.77**
	정신병질 성격	→	외로움	11.83**	-.35	12.89**	.54**	.02	.59**
	가학적 성격	→	외로움	-1.77*	.11	-1.48	-.12*	.01	-.10
	상상하기	→	외로움	1.99		1.99	.09		.09
조망수용	마키아벨리즘	→	외로움	2.22**	-.03	2.22**	.25**	-.00	.25**
	자기애적 성격	→	외로움	-5.96**	-.86**	-6.58**	-.70**	-.10	-.77**
	정신병질 성격	→	외로움	11.83**	1.41**	12.89**	.54**	.06	.59**
	가학적 성격	→	외로움	-1.77*	.18	-1.48	-.12*	.01	-.10
	조망수용	→	외로움	-3.55**		-3.55**	-.23**		-.23**

*p<.05, **p<.01

〈표 5〉 어둠의 성격 4요소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Boots(Low-Up)		
마키아벨리즘	→	상상하기	→	분노표출	.01		.00	-.00	~	.03
	→	조망수용	→	분노표출	-.00		-.00	-.03	~	.02
자기애적 성격	→	상상하기	→	분노표출	.04		.02	-.00	~	.10
	→	조망수용	→	분노표출	-.11	*	-.06	-.20	~	-.03
정신병질 성격	→	상상하기	→	분노표출	-.06		-.01	-.15	~	.08
	→	조망수용	→	분노표출	.17	*	.04	.04	~	.64
가학적 성격	→	상상하기	→	분노표출	.02		.01	-.01	~	.10
	→	조망수용	→	분노표출	.02		.01	-.02	~	.12

*p<.05

〈표 6〉 어둠의 성격 4요소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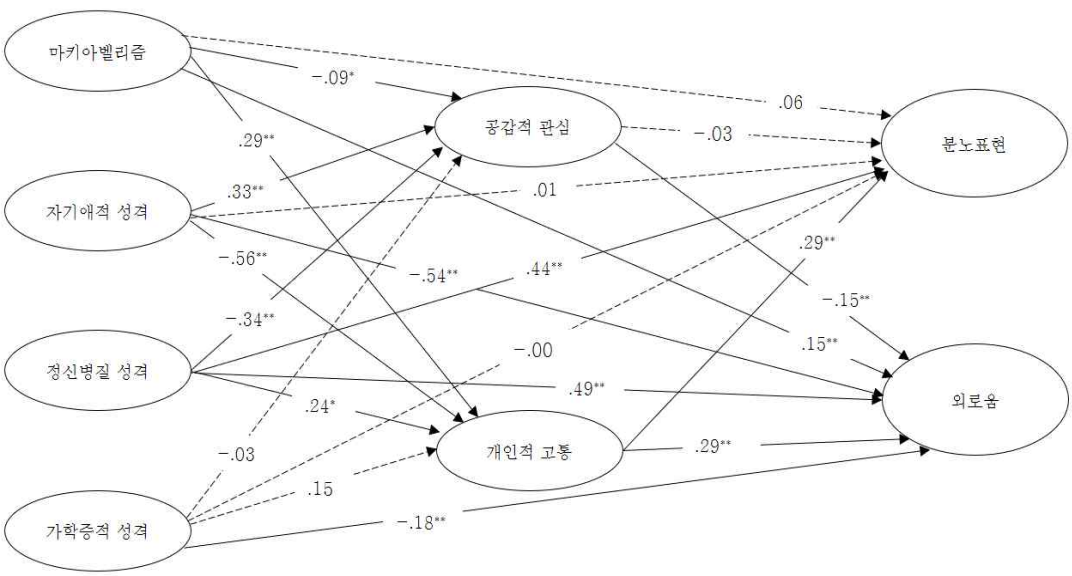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Boots(Low-Up)		
마키아벨리즘	→	상상하기	→	외로움	.03	.00	-.02	~	.13
	→	조망수용	→	외로움	-.03	-.00	-.19	~	.12
자기애적 성격	→	상상하기	→	외로움	.24	.03	.02	~	.50
	→	조망수용	→	외로움	-.86**	-.10	-1.24	~	-.51
정신병질 성격	→	상상하기	→	외로움	-.35	.02	-1.04	~	-.01
	→	조망수용	→	외로움	1.41**	.06	.66	~	2.43
가학적 성격	→	상상하기	→	외로움	.11	.01	.01	~	.88
	→	조망수용	→	외로움	.18	.01	-.64	~	.53

**p<.01

나.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이 연구의 예측변인인 어둠의 성격이 매개변수인 정서적 공감을 통해 종속변수인 분노표출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x^2=2514.83, *TLI*=.85, *CFI*=.87, *RMSEA*=.05, *SRMR*=.07. 경로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마키아벨리즘(β=-.09, p <.05), 자기애적 성격(β=.33, p <.01), 정신병질 성격(β=-.34, p <.01)이 매개변인인 공감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가학적 성격(β=-.03, p=.70)은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적 공감의 다른 하위요인인 개인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에서 마키아벨리즘(β=.29, p <.01), 자기애적 성격(β=-.56, p <.01), 정신병질(β=.24, p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가학적 성격(β=.15, p=.10)은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변인인 개인적 고통과 종속변인인 분노(β=.29, p <.01), 외로움(β=.29, p <.01)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공감적 관심에서 외로움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β=-.15, p <.01), 분노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β=-.03, p=.55). 독립변인인 어둠의 성격 4요소와 종속변인인 분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에서는 정신병질 성격(β=.44, p <.01)이 유의했고 마키아벨리즘(β=.06, p=.15), 자기애적 성격(β=.01, p=.87), 가학적 성격(β=-.00, p=.96)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종속변인인 외로움의 경로에서 마키아벨리즘(β=.15, p <.01), 자기애적 성격(β=-.54, p <.01), 정신병질(β=.49, p <.01), 가학적 성격(β=-.18, p <.01)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2〉. 연구모형1과 같은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를 계산한 값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어둠의 성격 4요소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적 관심을 매개하여 이어지는



[그림 2] 어둠의 성격 4요소와 분노표현 및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표 7〉 연구모형2의 효과분석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공	마키아벨리즘	→	분노	.12	.01	.27**	.06	.00	.15**
감	자기애적 성격	→	분노	.01	-.02	-.29**	.01	-.01	-.17**
적	정신병질 성격	→	분노	1.96**	.05	2.32**	.44**	.01	.52**
관	가학적 성격	→	분노	-.01	.00	.12	-.00	.00	.04
심	공감적 관심	→	분노	-.07		-.07	-.03		-.03
개	마키아벨리즘	→	분노	.12	.15**	.27**	.06	.08	.15**
인	자기애적 성격	→	분노	.01	-.29**	-.29**	.01	-.16	-.17**
적	정신병질 성격	→	분노	1.96**	.32**	2.32**	.44**	.07	.52**
고	가학적 성격	→	분노	-.01	.13	.12	-.00	.04	.04
통	개인적 고통	→	분노	.83**		.83**	.29**		.29**
공	마키아벨리즘	→	외로움	1.39**	.13**	2.29**	.15**	.01	.25**
감	자기애적 성격	→	외로움	-4.79**	-.45**	-6.68**	-.54**	-.05	-.75**
적	정신병질 성격	→	외로움	10.97**	1.17**	13.72**	.49**	.05	.61**
관	가학적 성격	→	외로움	-2.77**	.07	-2.04*	-.18**	.00	-.14
심	공감적 관심	→	외로움	-1.93**		-1.93**	-.15**		-.15**
개	마키아벨리즘	→	외로움	1.39**	.77**	.27**	.15**	.08	.25**
인	자기애적 성격	→	외로움	-4.79**	-1.44**	-.29**	-.54**	-.16	-.75**
적	정신병질 성격	→	외로움	10.97**	1.58**	2.32**	.49**	.07	.61**
고	가학적 성격	→	외로움	-2.77**	.67	.12	-.18**	.04	-.14
통	개인적 고통	→	외로움	4.17**		4.17**	.29**		.29**

***p<.01*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개인적 고통을 매개로 하여 분노표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마키아벨리즘(B=.15, p<.01), 정신병질 성격(B=.32, p<.01)은 정적으로, 자기애적 성격(B=-.29, p<.01)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높은 마키아벨리즘 혹은 정신병질적 성격일수록 개인적 고통 능력이 높아 분노를 야기하는 반면, 높은 자기애적 성격일수록 개인적 고통 능력이 낮아 분노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어둠의 성격 4요소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가학적 성격을 제외한 모든 성격에서 정서적 공감을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키아벨리즘에서 공감적 관심(B=.13, p<.01)과 개인적 고통(B=.77, p<.01)를 매개로 한 경로는 유의했으나 부트스트래핑 결과 개인적 고통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애적 성격에서 공감적 관심(B=-.45, p<.01), 개인적 고통(B=-1.44, p<.01)를 매개로 한 경로가 유의했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두 변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질적 성격은 공감적 관심(B=.32, p<.01). 개인적 고통(B=1.58, p<.01)을 매개로 한 경로는 유의했고, 부트스트래핑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두 변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8〉 어둠의 성격 4요소가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Boots(Low-Up)		
마키아벨리즘	→	공감적관심	→ 분노표출	.01	.00	-.01	~	.02
	→	개인적고통	→ 분노표출	.15**	.08	.10	~	.23
자기애적 성격	→	공감적관심	→ 분노표출	-.02	-.01	-.06	~	.03
	→	개인적고통	→ 분노표출	-.29**	-.16	-.40	~	-.19
정신병질 성격	→	공감적관심	→ 분노표출	.05	.01	-.09	~	.15
	→	개인적고통	→ 분노표출	.32**	.07	.14	~	.61
가학적 성격	→	공감적관심	→ 분노표출	.00	.00	-.01	~	.04
	→	개인적고통	→ 분노표출	.13	.04	.01	~	.30

**p<.01

〈표 9〉 어둠의 성격 4요소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Boots(Low-Up)		
마키아벨리즘	→	공감적관심	→ 외로움	.13**	.01	.04	~	.27
	→	개인적고통	→ 외로움	.77**	.08	.48	~	1.13
자기애적 성격	→	공감적관심	→ 외로움	-.45**	-.05	-.67	~	-.26
	→	개인적고통	→ 외로움	-1.44**	-.16	-2.00	~	-.94
정신병질 성격	→	공감적관심	→ 외로움	.32**	.07	.64	~	2.04
	→	개인적고통	→ 외로움	1.58**	.07	.81	~	2.99
가학적 성격	→	공감적관심	→ 외로움	.07	.00	-.22	~	.46
	→	개인적고통	→ 외로움	.67	.04	.05	~	1.51

**p<.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어둠의 4요소 성격이 분노 표출 및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하위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성격, 가학적 성격은 조망수용, 공감적 관심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가학적 성격일수록 인지적 공감 중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상태를 알아차리는 조망수용 능력과 정서적 공감 중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관련된 공감적 관심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해당 성격일수록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Jonason, Krause, 2013; Justice, 2016; Pajevic et al., 2018). 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 불편감, 불안을 경험하는 개인적 고통 능력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 정서적 공감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와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 반응성 척도를 개발한 Davis(1983)가 개인적 고통은 '긴장된 대인 관계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불편한 감정'이라 설명하며 자기-지향적(self-oriented) 정서 반응이라 한 것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인 사람은 자신

이 피해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자기-지향적 정서 반응 능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Batson, 2014) 공감의 한 요소이지만 어둠의 성격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기애적 성격은 상상하기, 조망수용, 공감적 관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개인적 고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기애적 성격은 공감능력이 낮지만(Miler, Campell, 2011; Waston, Grisham, Trotter, Biderman, 1984), 타인에게 관심받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예리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적 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Pajevic et al., 2018; Wai, Tiliopoulos, 2012). 또한 자기애적 성격의 사람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예민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설문에 응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더 많이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Waston, Morris, 1991). 이 연구에서의 공감적 관심 역시 진심 어린 관심으로 보기보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왜곡된 반응을 보인 결과일 수 있다.

어둠의 성격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서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성격, 가학적 성격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3가지 성격 성향이 클수록 역기능적으로 분노 표출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Glenn, Sellbon, 2015; Gogoriță, 2019; Jonason, Li, Teicher, 2010; Stead, Fekken, 2014). 반면 자기애적 성격은 분노 표출과 유의한 상관이 나오지 않았다.

어둠의 성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성격, 가학적 성격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둠의 성격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Çelikkaleli, Karababa, Ad ı güzel, 2022; Masui, 2019; Zhang et al., 2015). 반면 자기애적 성격은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과 외로움 간의 부적 상관이 있다고 했으나(La Sala, Skues, Grant, 2014) 이 역시 앞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인식하여 왜곡된 반응의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어둠의 성격 4요소가 분노표출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키아벨리즘 성격은 정서적 공감인 개인적 고통을 매개하여 분노표출 및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키아벨리즘 성격일수록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 자신이 받는 피해를 경계하게 되어 개인적 고통 능력이 높아진다(Baston, 2014). 이때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역기능적인 분노표출을 야기할 수 있다(Lau, Marsee, 2013). 혹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회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의 이러한 특징을 '쿨 증후군(Cool Syndrome)'이라 부르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외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단절하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Wastell, Booth, 2003). 마키아벨리즘 성격은 정서적 공감인 공감적 관심을 매개하여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개인적 고통과 달리 공감적 관심은

‘타인-지향적(Other-oriented)’ 정서 반응으로 고통을 겪는 대상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Davis, 1983). 따라서 마키아벨리즘 성격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공감적 관심 능력이 부족하다(Christie, Geis, 2013). 공감적 관심 부족에 의해 건강하지 못한 대인 관계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외로움이 야기될 수 있다(Spitzberg, 1980).

자기애적 성격이 인지적 공감인 조망수용을 매개하여 분노표출 및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인정받고 지속해서 존경받기 위해 타인의 생각이나 정서를 이해하려는 조망수용 능력이 생기게 된다(Wai, Campbell, 2011). 이러한 능력으로 자신의 목적이 충족되면 역기능적인 분노 표현 및 외로움으로 야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역기능적 분노가 표현될 수 있다(Papps, O’Carroll, 1998). 자기애적 성격은 정서적 공감인 개인적 고통을 매개하여 분노 표출 및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기애적 특성은 웅대한 자기상으로, 자기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견해를 갖기 때문에 개인적 고통을 경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Cain, Pincus, Ansell, 2008; Raskin, Hall, 1979). 직접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표현을 야기하지 않게 되며 피상적일지라도 대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야기되지 않는다. 자기애적 성격은 정서적 공감인 공감적 관심을 매개하여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존경받기 위해 타인이 경험하는 불행에 관심과 위로를 건넬 수 있다. 주변에 보이기에는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이 야기되진 않지만, 피상적인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Caligor, Levy, Yeomans, 2015).

정신병질 성격은 인지적 공감인 조망수용을 매개하여 분노표출 및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신병질 성격의 특징은 둔감하고 냉혈하기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며 시도도 하지 않는다(Lishner, Hong, Jiang, Vitacco, Neumann, 2015). 즉 조망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경험되는 대인 관계 결핍은 외로움을 야기할 수 있고, 타인과 갈등이 생길 때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될 수 있다(Çelikkaleli et al., 2022; Hare, Neumann, 2008). 정신병질적 성격의 사람들이 분노를 경험하면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이 유발되어 대인 관계에 적대적으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Sears, 1939).

정신병질 성격은 정서적 공감인 개인적 고통을 매개했을 때 분노표출 및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키아벨리즘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데, 정신병질 성격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신이 겪을 수 있을 고통에 경계하며 개인적 고통 능력이 높아진다(Baston, 2014; Hare, 1996). 이때 고통스

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야기할 수 있으며(Blair, 2018)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교묘하게 대인관계를 조작할 수도 있다(Hare, Neumann, 2008). 이러한 대인관계는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야기하게 된다(Çelikkaleli et al., 2022; Zhang et al., 2015). 또한, 정신병질 성격은 정서적 공감인 공감적 관심을 매개하여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신병질적 성격은 자기중심적이고 둔감하므로 타인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무관심하여 공감적 관심 능력이 떨어진다. 기본적인 사회기술 능력인 공감이 부족하여서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고 외로움이 야기된다. 정신병질 성격에게 외로움은 강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져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Martens, 2002).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여성에게 일반화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어둠의 성격 4요소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주로 높게 나타나지만(Jonason, Duineveld, Middleton, 2015), 이 연구에서는 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인 공감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성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인해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기애적 성격이 높을 수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나타남으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적인 특성이나,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Waston, Morris, 1991).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적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민감하게 여겨 설문지를 수행할 때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변인을 추가하여 점수의 보정을 시도하거나,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타인 평정이나 실험연구 혹은 주관적인 응답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횡단적 측정만을 활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설문지를 통해 한 시점만을 측정하였을 때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변인들의 연속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비롯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여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먼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어둠의 성격과 공감 능력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성격들이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와 달리, 각각의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둘째, 어둠의 성격 특징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정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향후 이러한 부정정서가 어떠한 부적응적인 대처와

대인관계의 문제 및 범죄행위 등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성격은 사회에서 임상적으로 손상된 수준은 아니므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기 쉽다. 따라서 학교현장이나 상담현장에서 해당 성격 특징이 있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일, 기선완, 김성은, 정범석, 황지희, 송지은,김지웅 (2009). 한국어판 대인 관계 반응성 척도의 신뢰도및 타당도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8*, 352-358.

김옥수(1997). 외로움 (Loneliness)의 개념 분석. **Health & Nursing (구 간호과학), 9**(2), 28-38.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엠브레인 트랜드모니터(2021).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은 요즘 사람들, MBTI 검사를 통해 나를 들여다 본다."**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101&code=0401&trendType=CKOREA에서 2021, 3, 자료 얻음.

여지영, 강석영, 김동현(2014). 초기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충동성, 외로움의 매개효과: SNS 집단과 게임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Korea Journal, 22*(1), 47-69.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TAXI-K) 개발연구: IV. **미술치료연구, 7**, 33-50.

Andershed, H., Gustafson, S. B., Kerr, M., & Stattin, H. (2002). The usefulness of self-reported psychopathy-like traits in the study of antisocial behaviour among non-referred adolescen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5), 383-402.

Archer, R. L., Diaz-Loving, R., Gollwitzer, P. M., Davis, M. H., & Foushee, H. C. (1981). The role of dispositional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in the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4), 786-796.

Batson, C. D. (2014).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Psychology Press.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Blair, R. J. R. (2018). Traits of empathy and anger: implications for psychopathy and other disorders associated with aggress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73*(1744), 20170155.

Blötner, C., Steinmayr, R., & Bergold, S. (2021). Malicious mind readers? A meta-analysis on machiavellianism and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11023.

Bonfá-Araujo, B., Lima-Costa, A. R., Hauck-Filho, N., & Jonason, P. K. (2022). Considering sadism in the shadow of the dark triad trait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dark tetra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7*, 111767.

Brankley, A. E., & Rule, N. O. (2014). Threat perception: How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relate to social perceptions during competi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1*, 103-107.

Brodie, Z. P., Goodall, K., Darling, S., & McVittie, C. (2019). Attachment insecurity and dispositional agg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anger regul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6), 1831-1852.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Buckels, E. E., Jones, D. N., & Paulhus, D. L. (2013). Behavioral confirmation of everyday sadism. *Psychological science, 24*(11), 2201-2209.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638-656.

Caligor, E., Levy, K. N., & Yeomans, F. E. (2015).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agnostic and clinic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2*(5), 415-422.

Campbell, W. K., & Miller, J. D. (2011).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Hoboken, NJ: John Wiley & Sons.

Çelikkaleli, Ö., Karababa, A., & Ad ı güzel, A. (2022).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dark personality traits and loneliness among emerging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empathic tendency. *Psycho-Educational Research Reviews, 11*(1), 341-354.

Chabrol, H., Melioli, T., Van Leeuwen, N., Rodgers, R., & Goutaudier, N. (2015). The Dark Tetrad: Identifying personality profiles in high-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97-101.

Chabrol, H., Van Leeuwen, N., Rodgers, R., & Séjourné, N. (2009). Contributions of psychopathic, narcissistic, machiavellian, and sadistic personality traits to juvenile delin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7), 734-739.

Christie, R., & Geis, F. L. (2013). *Studies in machiavellianism*. Academic Press.

Cooke, D. J., & Michie, C. (2001). Refin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towards a hierarchical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3*(2), 171-188.

Crysel, L. C., Crosier, B. S., & Webster, G. D. (2013). The dark triad and risk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1), 35-40.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University of Texas, Austin.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Dietz, P. E., Hazelwood, R. R., & Warren, J. (1990). The sexually sadistic criminal and his offenses.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18*(2), 163-178.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Yale University Press.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Fan, Y., Duncan, N. W., de Greck, M., & Northoff, G. (2011). Is there a core neural network in empathy? An fMRI based quantitative meta-analysi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5*(3), 903-911.

Finkel, E. J., Campbell, W. K., Buffardi, L. E., Kumashiro, M., & Rusbult, C. E. (2009). The metamorphosis of narcissus: Communal activation promotes relationship commitment among narciss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0), 1271-1284.

Furnham, A., Richards, S. C., & Paulhus, D. L. (2013).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A 10 year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7*(3), 199-216.

Giammarco, E. A., & Vernon, P. A. (2014). Vengeance and the dark triad: The role of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in trait forgiving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7*, 23-29.

Glenn, A. L., & Sellbom, M. (2015).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cerns regarding the dark triad as a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9*(3), 360-377.

Gogoriță, C. (2019). Dark triad of personality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and young people. *Studia Doctoralia, 10*(2), 102-113.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

Hare, R. D., & Neumann, C. S. (2008). Psychopathy as a clinical and empirical construct.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17-246.

Howe, D. (2012). *Empathy: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Bloomsbury Publishing.

Jeung, H., & Herpertz, S. C. (2014). Impairments of interpersonal functioning: empathy and intimac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ology, 47*(4), 220-234.

Johnson, L. K., Plouffe, R. A., & Saklofske, D. H. (2019). Subclinical sadism and the dark triad: Should there be a dark tetrad?.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40*(3), 127-133.

Jonason, P. K., Duineveld, J. J., & Middleton, J. P. (2015). Pathology, pseudopathology, and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8*, 43-47.

Jonason, P. K., & Krause, L. (2013). The emotional deficits associated with the dark triad traits: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and alexithymi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5), 532-537.

Jonason, P. K., Li, N. P., & Teicher, E. A. (2010). Who is James Bond? The dark triad as an agentic social style.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8*(2), 111-120.

Jonason, P. K., Li, N. P., Webster, G. D., & Schmitt, D. P. (2009). The dark triad: Facilitating a short-term mating strategy in m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3*(1), 5-18.

Jonason, P. K., Luevano, V. X., & Adams, H. M. (2012). How the dark triad traits predict relationship choi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3), 180-184.

Jonason, P. K., Lyons, M., Bethell, E. J., & Ross, R. (2013). Different routes to limited empathy in the sexes: Examining the links between the dark triad and em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5), 572-576.

Jonason, P. K., & Schmitt, D. P. (2012).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Friendship-selection in the shadow of the dark triad traits. *Evolutionary Psychology, 10*(3), 400-421

Jonason, P. K., & Webster, G. D. (2010). The dirty dozen: a concise measure of the dark triad.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20-432.

Johnson, S. A. (2019). Understanding the violent personality: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y, & sociopathy explored. *Forensic Research & Criminology International Journal, 7*(2), 76-88.

Justice, A. (2016). *The relationship of empathy and impulsivity to the dark tetrad of personality*. University of Abilence Christian, Texas.

Kajonius, P. J., & Björkman, T. (2020). Individuals with dark traits have the ability but not the disposition to empathiz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5*, 109716.

Karandikar, S., Kapoor, H., Fernandes, S., & Jonason, P. K. (2019). Predicting moral decision-making with dark personalities and moral valu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0*, 70-75.

Karaoglan Yilmaz, F. G., Avci, U., & Yilmaz, R. (2022). The role of loneliness and agg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Current psychology*, 1-9.

Kiire, S. (2017). Psychopathy rather than machiavellianism or narcissism facilitates intimate partner violence via fast life strate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401-406.

Konstam, V., Chernoff, M., & Deveney, S. (2001). Toward forgiveness: The role of shame, guilt anger, and empathy. *Counseling and Values, 46*(1), 26-39.

Kowalski, R. M. (2001). *Behaving badly: Aversive behavio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a Sala, L., Skues, J., & Grant, S. (2014). Personality traits and facebook use: The combined/interactive effect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Social Networking, 3*(05), 211-219.

Lau, K. S., & Marsee, M. A. (2013). Exploring narcissism,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in youth: Examination of associations with anti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3), 355-367.

Lishner, D. A., Hong, P. Y., Jiang, L., Vitacco, M. J., & Neumann, C. S. (2015). Psychopathy, narcissism, and borderline personality: A critical test of the affective empathy-impairment hypothe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257-265.

Losoya, S. H., & Eisenberg, N. (2001). *Affective empathy*. In Interpersonal sensitivity(pp. 35-58). Psychology Press.

Maibom, H. L. (2017). *Affective empathy*.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philosophy of empathy (pp. 22-32). Routledge.

Mandiwana, P. (2021).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dark etrad personality traits, violent crime, and recidivism: A systematic revie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retoria.

March, E. (2019). Psychopathy, sadism, empathy, and the motivation to cause harm: New evidence confirms malevolent nature of the internet trol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33-137.

Masui, K. (2019). Lonelines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ark tetrad personality traits and internet troll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0*, 109475.

Martens, W. H. (2002). The hidden suffering of the psychopath. *Psychiatric Times, 19*(1), 1-7.

McDonald, N. M., & Messinger, D. S. (2011). The development of empathy: How, when, and why. *Moral behavior and free will: A neurobiolog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333-359.

McWhirter, B. T., Besett-Alesch, T. M., Horibata, J., & Gat, I. (2002). Loneliness in high risk adolescents: The role of coping,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Youth Studies, 5*(1), 69-84.

Muris, P., Merckelbach, H., Otgaar, H., & Meijer, E. (2017). The malevolent side of human nature: A meta-analysis and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dark triad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2), 183-204.

Nell, V. (2006). Cruelty's rewards: The gratifications of perpetrators and spectator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9*(3), 211-224.

Neumann, C. S., Jones, D. N., & Paulhus, D. L. (2022). Examining the short dark tetrad (SD4) across models, correlates, and gender. *Assessment, 29*(4), 651-667.

O'Meara, A., Davies, J., & Hammond, S. (2011).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utility of the short sadistic impulse scale (SSIS). *Psychological assessment, 23*(2), 523-531.

Ozcan, H., Savci, H., Canik, M., Ayan, M., & Bas, C. F. (2022).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nopausal symptoms and loneliness and anger*.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Pajevic, M., Vukosavljevic-Gvozden, T., Stevanovic, N., & Neumann, C. S.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rk tetrad and a two-dimensional view of em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3*, 125-130.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4*(6), 421-438.

Paulhus, D. L., Buckels, E. E., Trapnell, P. D., & Jones, D. N. (2021). Screening for dark personalities: The short dark tetrad (SD4).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3), 208-222.

Paulhus, D. L., & Jones, D. N. (2015). *Measures of dark personalities*. In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constructs (pp. 562-594). Academic Press.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Pilch, I., & Turska, E. (2015). Relationships between machiavellianism,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place bullying: Emotional abuse from the target's and the perpetrator's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8*(1), 83-93.

Qualter, P., Quinton, S. J., Wagner, H., & Brown, S. (2009). Loneliness, interpersonal distrust, and alexithymia in university student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6), 1461-1479.

Ramos-Villagrasa, P. J., Fernández-del-Río, E., & Barrada, J. R. (2020). Does evil prevail?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adaptive performance. *Sustainability, 12*(2), 1-13.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s of empathy (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7), 593-605.

Reidy, D. E., Zeichner, A., & Seibert, L. A. (2011). Unprovoked aggression: Effects of psychopathic traits and sadism. *Journal of personality, 79*(1), 75-100.

Richell, R. A., Mitchell, D. G., Newman, C., Leonard, A., Baron-Cohen, S., & Blair, R. J. R. (2003). Theory of mind and psychopathy: can psychopathic individuals read the 'language of the eyes'?. *Neuropsychologia, 41*(5), 523-526.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Shamay-Tsoory, S. G. (2011). The neural bases for empathy. *The Neuroscientist, 17*(1), 18-24.

Snyder, M., & Ickes, W. (1985).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3), 883-947.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research edition.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Spitzberg, B. H. (1980).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Lonelines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Western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San Jose, CA.

Stead, R., Fekken, G. C., Kay, A., & McDermott, K. (2012). Conceptualizing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Links to social symptomat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8), 1023-1028.

Stead, R., & Fekken, G. C. (2014). Agreeableness at the core of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2*, 131-141.

Stinson, J., Wolfe, R., & Spaulding, W. (2022). Social connectedness in schizotypy: The rol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Behavioral Sciences, 12*(8), 1-19.

Stravynski, A., & Boyer, R. (2001). Loneliness in relation to suicide ideation and parasuicide: A population-wide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1), 32-40.

Tracy, R. P. (2017). The dark tetrad and depressive symptoms: exploring the role of rumin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asmania).

Turner, I. N., Foster, J. D., & Webster, G. D. (2019). The dark triad's inverse relations with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High-powered tests with multiple meas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9*, 1-6.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Wai, M., & Tiliopoulos, N. (2012). The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ic nature of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7), 794-799.

Wastell, C., & Booth, A. (2003). Machiavellianism: An alexithymic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6), 730-744.

Watson, P. J., Grisham, S. O., Trotter, M. V., & Biderman, M. D. (1984). Narcissism and empathy: Validity evidence for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301-305.

Watson, P. J., & Morris, R. J. (1991). Narcissism, empathy and social desira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6), 575-579.

Wei, M., Heppner, P. P., & Mallinckrodt, B. (2003). Perceived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38-447.

Williams, K. M., & Paulhus, D. L. (2004). Factor structure of 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SRP-II) in non-forensic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4), 765-778.

Zhang, W., Zou, H., Wang, M., & Finy, M. S. (2015). The role of the dark triad traits and two constru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loneliness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5*, 74-79.

1 차원고접수일 : 2022.09.16.
수정원고접수일 : 2022.10.08.
게재확정통보일 : 2022.10.13.

논 문 저 자

유 정 아(Jeong-A YU) 정회원



- 2020년 2월: 건양대학교(문학사)
- 2021년 3월~현재: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

〈관심분야〉 임상심리, 아동·청소년 심리, 성격심리, 척도 타당화 등

최 재 광(Jae-gwong CHOI) 정회원



- 2017년 2월: 건양대학교(문학사)
- 2019년 2월: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문학석사)
- 2022년 9월: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박사수료)

〈관심분야〉 임상심리, 상담심리, 교정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등

송 원 영(Won-young SONG) 정회원



- 1997년 2월: 충남대학교(문학사)
- 1999년 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07년 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철학박사)
- 2007년 3월~현재: 건양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교정심리치료, 청소년 심리, 인지행동치료, 척도 개발 등